

희망실천

October Vol.11 신바람 나는 일터

희망실천

발행일 2011. 11.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만든이 EM실천 총무기획팀
 전화 02.875.9744, 9733 팩스 02.875.9965
 홈페이지 www.em21c.com



04



08



12

Contents October Vol.11

- 03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용표 신임이사장 인사말
- 04 2011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종사자 워크샵
- 06 프로그램 '신나는 한가위 놀이마당'
- 08 자원봉사활동보고 아모레퍼시픽(주)
- 10 여름캠프 GAT OUT!
- 12 생각하는 공간 지역탐방 '서울형사회적기업-한국철보공예협회'
- 14 독립주거생활 장진호, 조용철, 이회자, 조은숙
- 16 집중취재 'She & He' 김지연, 민성준
- 18 취업박람회 '동작구취업박람회'
- 20 EM실천 근로인들의 재능 '작가의길' 투고글
- 22 사회복무요원 3총사
- 24 내고장 자랑거리
- 26 쉬어가는 자리(게임, 퀴즈 등) & 추천도서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 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서 살아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장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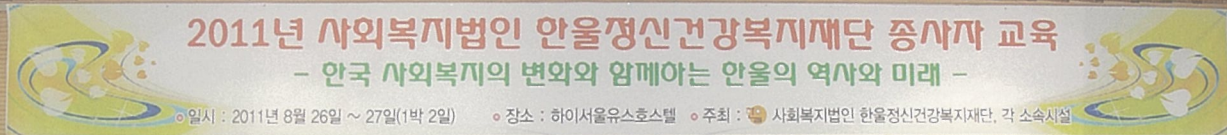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직책을 맡은 이용표입니다. 그동안 법인에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박경수 전임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을 위해 힘써주시고 관심주시는 한울법인 이사님들과 감사님, 산하시설 모든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은 1992년 뜻을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모임을 시작한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그때의 열정과 가슴의 온기가 지금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써, 또한 한울법인의 시작을 함께한 한사람으로써 처음 그때의 열정 그대로, 다시한번 우리 모든 법인가족들과 함께하고자 하며 책무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일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 첫째, 법인발전을 위한 재정적 토대를 안정되게 구축하자 합니다.
- 둘째, 한울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열심히 개발하고자 합니다.
- 셋째,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인시설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넷째, 정신장애인을 위한 토탈케어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 다섯째, 전체 법인직원이 하나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업들을 법인 전체직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법인으로 발 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신임 이사장 **이용표**



2011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종사자 워크숍

- 일시: 2011년 8월 26일~27일 • 장소: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주제: '한국사회복지 변화와 함께 하는 한울의 역사, 그리고 미래'
- 특강: 조흥식(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첫 번째 특강은 '사회복지법인 한울의 역사와 비전' 으로 조흥식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간단하게 사회복지법인 한울 정신건강복지재단의 이력을 살펴보면 1992년 4월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대학교수들의 모임시작이 한울법인의 모태가 되었고 그해 11월 중구 순화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초대소장으로 문인숙교수(이화 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하는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발족하였다.

1993년 7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 사회복지사가 지금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교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 이를 자랑스러워하시는 김용득교수님. 한울법인 제1호 사회복지사.

이후 정신의료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되기까지의 과정과 역사, 그와 함께한 이사님들과 산하시설의 임직원모두가 한울이라는 이름아래 큰 울타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EM실천에 입사하여 현재 만 9년이 넘는 나이에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워크숍이었다. 법인설립 20주년을 바라보고 있고 그 절반의 시간에 우리 EM실천이 함께 성장했다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첫 번째 특강은 마무리 되었다.



두 번째 특강은 한울법인의 제1호사회복지사인 김용득교수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장애인복지의 최근 트렌드 '장애인서비스 정책의 쟁점과 전망'에 대한 강의였다.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알고 최근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 강의였다. 정신보건을 시작으로 성장한 한울법인이 최근 장애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한울법인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라는 점에서도 즐겁고 기대되는 법인이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용득교수님의 강의는 목소리 만큼이나 청명하게 그리고 또렷 또렷하게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연혁개요

1993년	7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 프로그램 시작
1994년	5월	한국정신건강복지연구소 개소식 기념세미나-만성정신장애의 현황과 재활프로그램-개회
1996년	10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1997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의료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설립허가 받음
1997년	7월	관악구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설립
1998년	12월	정신의료법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명칭 변경
1999년	8월	중랑구에 '중앙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설립
2000년	2월	정신장애인 창업모형 작업장 EM실천 인쇄소 창업
2001년	3월	정신장애인 그룹홈 시범사업 실시 '새로 듣는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2002년	3월	정신장애인 보호작업시설 'EM실천' 개설
2003년	1월	정신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조은세상' 설립
2005년	1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정신장애인 여성 주거시설 '꿈꾸는 집' 개설
2007년	1월	남성주거시설 '새로 듣는집' 공공임대주택을 활용 이전 확대
2007년	8월	대전지부에서 '정신장애인 토크케어서비스' 사업 시행
2007년	10월	대전지부에서 '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 시행
2008년	11월	대전지부에서 '장애아동 문화체험서비스' 시행
2009년	2월	대전지부에서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시행
2009년	4월	대전지부에서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시행
2009년	6월	대전지부에서 '취약계층 Happy Family 라이프코칭서비스' 시행
2009년	6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2011년	1월	한울사회서비스사업단 신설, 서울지역 정신건강토크케어 시작

2011. 8. 26-27일 종사자 교육 일정

월일	시간	진행 내용	강사 및 이사회 일정	
8/26(금)	15:50-16:00	개회사	박경수 대표이사	
	16:00-16:50	한울 법인의 역사와 비전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7:00-17:50	장애인서비스정책의 쟁점과 전망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8:00-19:00	자막식사		
	19:00-20:30	'우리는 한울, 함께 하는 즐거움'(레크레이션)		
	20:30-	'천목의 방'	이사회 (19:20:30)	이사,감사(11인)
8/27(토)	8:00-9:00	아침식사		
	9:00-10:00	각시설 현황 및 장단기계획 실행 보고	각시설장	
	10:00-10:30	대표이사 인사(전임, 신임) 및 비전 발표	전임, 신임 대표이사	
	11:00 폐회	폐회 인사		

한가위 놀이마당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 보름달같이 풍성한 추석 보내셨나요?

여기서 잠깐!

한가위란 “한” 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일정 | 9월 9일 (금)

내용 | 팔씨름, 딱지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총무기획팀 박수현



팔씨름에서는 믿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한 근로사원 **임영호씨**가 남자부 팔씨름 대회의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DM작업시 무거운 물건을 거뜬하게 옮기던 것들이 이번 팔씨름 대회 우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기차기대회에서는 복사팀의 박동진씨, **제기차기**에는 우편발송팀의 **홍정기씨**가 두각을 나타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명절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인 **웃놀이**는 시작과 동시에 각 팀의 팀장, 부팀장님들의 신경전이 불꽃 튀기게 벌어졌는데, 웃을 던질 때 마다 모가 나오는 '모'녀 **김상희씨**의 대활약으로 1팀이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명절프로그램은 아모레퍼시픽의 든든한 후원물품으로 부족함이 없이 상품이 지급될 수 있었으며 회원들의 재미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EM실천을 아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분들과 언제나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6

1 임영호 對 박재민 팔씨름

2 임영호 對 임영기 팔씨름

3 유영실 웃놀이

4 하재욱 제기차기

5 '어서 던지세요. 고민하지 마시구요' (웃던지기에 고민중인 김지연)

6 웃판에 신경전 경향미, 유영실

7 박계영 웃놀이 '웃도 너무 조용히 던지시는데요~'

8 '사이 좋게 던지기'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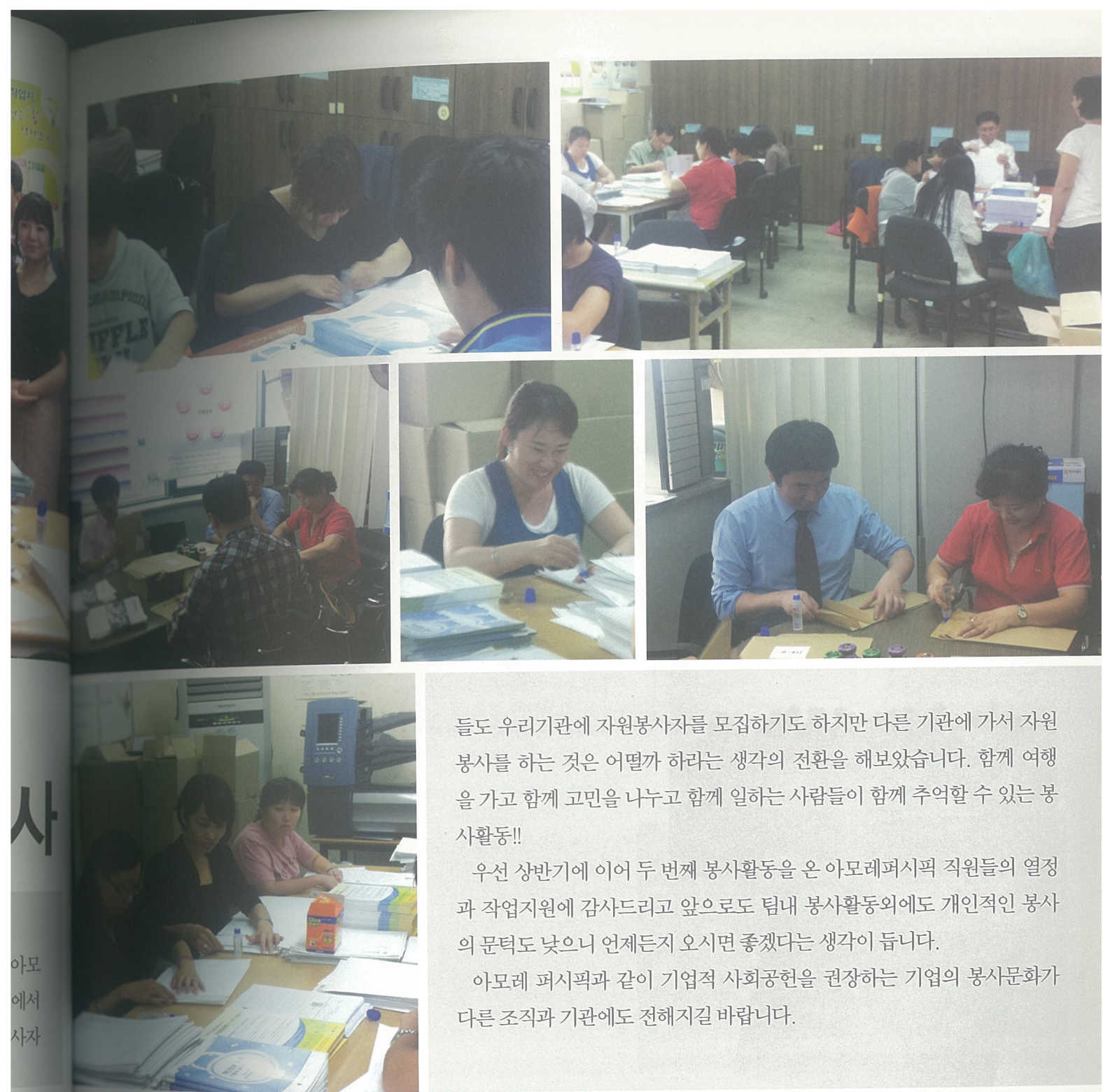
8



AMORE PACIFIC 과 함께 한 자원봉사

2011년 2분기에 이어 아모레 퍼시픽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왔습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재능기부보다는 작업지원 자원봉사로 활동에 참여해주었습니다. 자원봉사에 오신 아모레 직원들은 오전에는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자원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같은 팀이 같은 공간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인 EM실천의 종사자



들도 우리기관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라는 생각의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추억할 수 있는 봉사활동!!

우선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봉사활동을 온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의 열정과 작업지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팀내 봉사활동외에도 개인적인 봉사의 문턱도 낮으니 언제든지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같이 기업적 사회공헌을 권장하는 기업의 봉사문화가 다른 조직과 기관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2011년 EM실천의 최고의 여름캠프 '갯아웃(GAT OUT)'



2011년 여름캠프는 GAT(Give And Take) OUT!(직장으로의 탈출, 또다른 희망의 시작)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장에서 벗어나 동료와 함께 자연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받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이 자신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의 기회를 갖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첫째날_ 청포대를 살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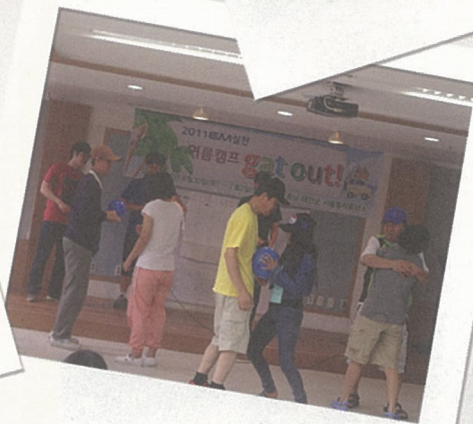
태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소개해준 청포대해수욕장의 번영회 회장인 박만석 회장의 지원으로 청포대해수욕장 일대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둘째날_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여름캠프의 하이라이트 '물놀이' 한적한 해수욕장에서 우리들만의 추억만들기

장애극복을 주제로 한 영화를 통해 나의 장애, 그들의 장애가 다르지 않고 EM 실천이라는 공동체가 나라는 개인이 아닌 우리가 우리들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날_ 집으로 GO! GO!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멋진 행담도 휴게소에서 맛있는 점심먹기

바쁜 일상에서의 멋진 여름휴가인 여름캠프,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막상 탁트인 해변을 보니 기분이 상쾌해지더군요. 어른인 우리들이 아이처럼 신나게 뛰어놀수있는 곳, EM실천 가족모두가 함께 해서 더욱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여름캠프는 또 어디로 갈까요? 기대해주세요.



동아리활동 '칠보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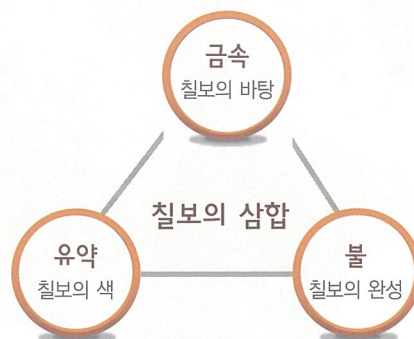
칠보란

칠보는 금, 은, 구리, 점토, 유리등의 바탕재료에 칠보유약으로 디자인한 후 소성시키는 독특한 표현기법중의 하나로서 소성된 유약은 유리질화되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태어나게 된다. 칠보의 어원은 불교에서 말하는 7가지 보배를 일컫는 말로써, 경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7가지 보석 즉, 금·은·청옥·수정·진주·마노·호박을 가리킨다.

칠보의 기법

칠보의 기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는 올리기, 그리기, 뿌리기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제작방법에 따라 단색, 다색 기법, 분유, 휘젓기, 전사, 조금(彫金), 형지(型紙), 부식, 조각, 굽어내기, 은박, 유선 기법 등이 있다.

칠보의 삼합



〈제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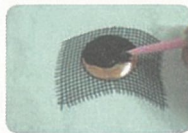
1. 칠보작품 용도 및 디자인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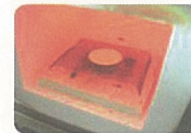
2. 금속프레임 처리
방법 ① 유산에 희석 처리 후 세척
② 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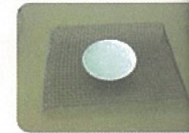
3. 유약세척



4. 프레임 앞면
필요한 유약으로 디자인



5. 1차 소성



6. 프레임 뒷면 올린 후
실은 건조



7. 실은 건조



8. 2차 소성



9. 마무리

칠보 공예품



칠보공예의 장점

- 집중력 및 정서함양 도움
- 색채가 아름답고 반 영구적임
- 다양한 표현이 가능
-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예품
-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음



(사)한국 칠보공예 협회

Korea Enameling Association(KEA)

활동사진



주거생활

주거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그 형태로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입소 및 주거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시설은 입소와 이용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즉,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와 기본적인 주거, 직업,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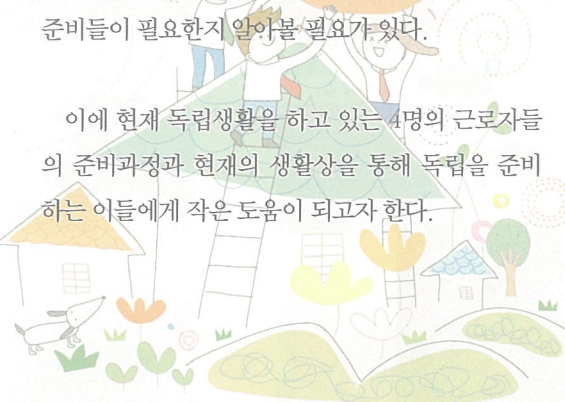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1) 생활훈련시설 : 정신장애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 2) 작업훈련시설 :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는 시설
- 3) 종합훈련시설 : 생활훈련과 작업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시설
- 4) 주거시설 : 정신장애로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

EM실천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만 몇몇 근로자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 주거시설에서 독립주거에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3년간 받고 이후임대주택, 아파트 및 월세, 전세 등의 주거형태를 가지고 독립생활을 한다.

현재 EM실천 근로자중에 주거시설을 이용자는 3명이고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6명이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 독립하거나 주거시설훈련을 통해 독립을 하였다. 현재에도 독립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이들은 독립생활하고 있는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독립을 준비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과 준비들이 필요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4명의 근로자들의 준비과정과 현재의 생활상을 통해 독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독립생활자



장진호



조용철



이회자



조은숙

Q. 독립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2년정도되었나봐요

2년이 지났네요.

작년봄부터 혼자 지내고 있어요

올초에 독립했어요

Q. 독립생활을 위해 주거시설을 이용했는가?

yes

yes

yes

예, 보라매동의 꿈꾸는집

Q. 준비기간은?

3년

3년

3년

3년

Q. 독립을 위한 준비사항은?

정기적인 저축

돈, 자기관리, 일자리

돈이죠.

살림살이 꾸미기, 시장보기, 요리하기, 친구들과 잘지내기, 짜임새있는 소비계획 등

Q. 집의 형태는 어떻게 되며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빌라, 자가고 같이 일하는 동료와 살고 있다.

빌라, 월세이고 같이 일하는 동료와 살고 있다.

임대주택, 혼자살고 있어요

임대주택, 혼자살고 있어요

Q.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는가?

EM실천에서 받는 월급 이랑 일정부분 가족의 도움을 받아요.

생계비랑, EM실천에서 받는 월급

일해서 버는 돈, 생계비받는 돈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도, 이회자씨와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의 일터가 더욱 소중한요.

Q. 독립생활에서 가장 힘든것 3가지는?

반찬만들기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 혼자서도 약을 잘 챙겨먹어야 하는 것

외로움, 자기관리, 돈관리

집관리, 문단속하기

Q. 독립을 준비하는 동료들에 해주고 싶은 충고는?

저축을 하자

규칙적인 생활하기

적극적인 사회생활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연대감을 갖고 교류하기, 용돈기입과 가계부 쓰기,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기

조용하지만 엉뚱하고 강한 매력을 지닌 그녀... She 김지연

입사한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녀의 포스는

그야말로 몇 년은 있었던 것 같은.. 강함이 물씬 풍긴다.

하지만 강한 외면의 모습과는 달리, 조금만 췌겨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녀는 어느새 순진한 웃음을
펼쳐 미소를 방~긋 지어준다.

아침시간.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묵묵히..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조용히 할 뿐이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법 한데도 항상 매순간이 변함없는 그녀

바빠서 이리저리 바쁜 담당자의 모습에도 주저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차분함마저 지닌 매력의 소유자

쉬는 시간이 되자 조용히 일어나 휴게실로 향하는 발걸음. 그녀의 발걸음이 가볍다.

유일한 휴식공간인 그곳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머리를 식히곤 한다.

휴게실 너머로 허공을 쳐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

...무슨 생각을 하는걸까...?

식사시간이 지나고 그녀의 왼쪽 손에 들려져있는 따뜻한 카페모카 한잔.

웃으며 그녀의 걸을 지나가려는 순간, 조용히 필자의 팔을 잡으며 무언가를 건넨는 그녀..

선생님~ 이거 드세요*^^*

그렇다. 이사람 나를 위해 준비해온 영양갱 하나를 조용히 건넨다.

이렇게 마음까지 좋은, 한겨울 따뜻한 카페라떼 같은 그녀 김지연

오늘도 조용히 그녀의 하루가 지나간다.



EM살현에는 선비가 한명 있습니다. He 민, 성, 준.

바쁨이 없으며 언제나 여유와 온유의 미소를 보이는 그
그를 볼 때면 한없는 답답함과 한숨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를 보면 웃음과 희망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오늘 그의 하루를 함께 한다.
출근길, 집에서 덜컹 것인가, 엉덩이에 걸친 바지가 내려올까 염려되는 복장, 꼭눌러 쓴 초록모자
안녕하세요, 성준씨~
조용하게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 네~ (눈자의 미소)
출근카드를 찍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일거리가 죽어질때까지 조용히 기다림을 보내는 그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기다리는 그
어서 일 시작합니다. 민,성,준씨~ 그의 이름을 불렀을때 그는 꽃이 아닌 움직임을 보였다.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난다.

작업중 : 주변의 작업속도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작업에 참여하는 그~
쉬는 시간이 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를 뜬다.
조용히 휴게실로 가서 캔커피를 먹으며 담배한가피의 여유~~
작업이 시작되자 그는 조용히 걸어들어온다. 발걸음소리가 들릴까 두려운 것인가...
너무도 아름다운 자태의 걸음걸음, 소리가 나지 않는 선비적 자태~
그의 뒷모습은 이러하다.

발송담당자의 성급한 목소리와 다급한 몸짓에도 요동치 않는 작업스타일과 속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지않은 그, 그이유는 뭘까

민성준씨는 2010년 초 금천구정신보건센터에서 소개, EM살현에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취업육구 및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아 여러차례 EM살현 이용중단을 고려했으나 지금 그의 곁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 주고, 그의 흥미와 재능을 알고 중국어 강의를 맡겨준 임성수팀장님과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그는 한자야놀자를 통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한자능력시험 6급에 당당히 합격했다. 중국어를 전공한 그에게 한자, 중국어는 어려움이 아니지만 그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던 터라 소중한 기회로 내년에는 더 높은 단계의 자격증에 도전한다고 한다. EM살현과 그의 인연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그의 느낌과 씩이 답답함과 힘듦이 아니라 EM살현의 희망과 가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

총무기획팀장_박미선

2011 동작구 '장애인 취업박람회'

총무기획팀장 박미선



2011년 서울시를 비롯 25개 지자체에서 각기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 그중 EM실천은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준비하고 동작구청에서 후원한 'go go job 2011년 동작구장애인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인쇄, 우편발송에 참여가능한 장애인을 뽑기위해 12명의 취업희망 근로장애인을 만나보았습니다.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을 위해 이력서를 준비하고 찾아간 경험은 많으나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구인하기위해 구인업체로 참가하게 된 동작구장애인취업박람회는 다양한 업체들이 구인업체로 참여를 했고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있었습니다.

동작구장애인취업박람회는 매년 동작구청내 강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동작구에 위치한 업체외에도 금천구, 관악구등 인근 지자체에 위치한 업체들이 참여하여 장애인고용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 구인업체 대표로 참여한 나는 취업을 희망하고 준비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이러한 취업박람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늘귀에 실을 끼우는 일보다 어려운것이 장애인취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취업부스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기위해 몇 번이고 두리번거리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 어렵게 면접을 보는 이들, 면접이기보다는 사정을 하는 이들, 면접을 보기에는 의사표현이 힘든 이들, 생각보다 철저히 준비한 이들, 여러 박람회에서 이제 면접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지만 하나의 희망을 꿈꾸는 이들, 면접에 큰 의미를 두는 이들.... 많은 이들이 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중이던 김애숙선생님과 총무기획팀 전원이 참여한 2011년 동작구장애인취업박람회는 매년 가을에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과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길 바라고 EM실천에 소중한 이력서를 내주시고 성의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그때 그 시절 · 어머니의 인생

수필작품/이희자

그때 그 시절

가을이면 집 앞에 코스모스가 한들한들 피어있고, 아버지와 나는 배드민턴을 집 앞에서 치고 누가 이길 새라 있는 힘을 다해 쳤다. 우리 집 옆집에는 살구나무가 네그루가 있었다. 가을이 되면 살구가 맛있게 익어서 살구의 달고 신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옆집에서는 오빠들이 3명이고, 쌍둥이 언니 2명, 나이는 나하고 같은데 동생처럼 대하는 친구 그 아이 하고 친했었다. 구슬치기도 하고 고무줄놀이도 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

집들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우리 집 쌍둥이 언니 집 방앗간 떡방앗간 중2학년 때 나는 과학 선생님을 짝사랑했다. 짝사랑만 여러 번하고 선을 보아서 시집을 너무 일찍 갔다. 선 보고 6개월 만에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남자였다. 집에서는 여동생들이 많아 아버지도 안계신데 시집을 일찍 보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지금도 못 잊고 있다. 첫아이 낳고 돌잔치하고 우울증에 걸려 강남성모 병원에 입원을 2달이나 했는데 못 고친다고 해서 의왕시 계요병원에 가서 1달 반 만에 정신이 들어 퇴원했다.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고, 하지만 첫째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재발했다. 입원을 20번도 넘게 했다. 고향에 쌍둥이 언니하고 친구가 보고 싶다. 못 본지도 20년도 넘는다. 살구만 보면 그때 시절이 생각난다.

어머니의 인생

어머니는 아버지를 일찍 만나 결혼을 하셨다. 1남 6녀를 낳으시고 저를 제일 이뽀하시고 남자동생을 좋아했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많이 얻어맞았다.

아버지가 고3 때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막내도 같은 장소에 사고를 당했다. 넷째동생은 풀밭으로 떨어져서 멀쩡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셔서 나하고 둘째 동생은 야간 고등학교에 갔으니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서울에서 사는 이모가 자꾸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와 조그마한 분식집을 인수해서 경영하셨다. 박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용산에 전자 상가에 한식집이 있는데 장사해서 반으로 나누자고 하셨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돈을 벌어서 원당 빌리지를 사셨다. 5년인가 살았는데 남동생이 3년째 일을 안 하고 직장에 못 들어가서 고향에 영업파트가 있는데 그곳에 입사해서 잘 다니다가 또 직장을 그만두고 놀고 있다.

어머님은 성당에 수녀원에 일하시고 주방을 맡아 일을 하시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다. 이제는 쉬어야 하는데 조카 3명이 있고 남동생 올케 지금은 우울증 골다골증 허리가 많이 아파 힘들어 하신다. 저도 요즘 힘들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 피정 · 송이버섯과 썸바귀

수필작품/조은숙

그 사람을 가졌는가

난 행운을 가지고 싶다.

내가 처음 아팠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사고를 당해서 놀라서 아팠다. 그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교리를 받고 성당에 다녔다. 성당 선배와 신부님의 기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병원 문턱이 높아 제대로 치료 받은 적이 없었으나 선배들이 가두판매와 신부님의 기도하에 힘입어 처음으로 전문적인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4개월 만에 퇴원을 하고, 이어서 작은 가족단위로 사는 곳에서 안정을 취해 매일 매일이 좋아졌다. 지금도 그 때 선배와 회원들을 만나고 있고 있다. 이제 그 사랑과 보살핌만 그리워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옛날 일을 그리워하는 맹점이 있는데 지금 현실을 가장 잘 견뎌내고 옛 분들에게서 기도 제목을 정해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실천해봐야겠다.

신부님, 선배님들, 우리 회원들 감사합니다.

피정

여름하면 시원한 바다와 계곡으로 가야지? 하고 생각이 든다. 난 매년 장호원으로 친척언니가 있는 곳으로 휴가를 간다.

그런데 이번 휴가는 수녀님 권유로 피정을 갔다. 4일간 피정을 했는데 장호원 엘리언니도 함께 했다. 뜨거운 열기로 피정에 임하니 더위는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했다. 두 분의 신부님과 신자들과 내가 상처를 입은 치유에 대한 피정을 했다.

피정이란 조용히 기도하고 세상 걱정을 덜하고 쉬는 것이다. 무작정 달리고 바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여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장소는 정릉4종 성당에서 피정을 했는데 500명 정원에 약 600~700명이 모였다.

찬미를 좋아하는 난 열심히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리고 엘리언니와 수녀님들 관계에서 이해와 상대방의 마음을 짚어주는 배려가 필요함을 배웠다.

송이버섯과 썸바귀

무더운 여름을 바쁜 농사일로 씨름을 하며 지내고 이제 추석을 맞아 햇 곡식을 지어 먹고, 올해는 비가 많이 내려서 마을 남자들은 배낭을 매고 단양, 제천 등으로 송이 채취를 나선다. 신기한 것은 소나무 뿌리에 마사토라는 흙이 있는데 그 속에 송이가 묻혀서 자라고 있다. 육안으로는 송이버섯이 안보여도 향기가 풍겨 어디쯤 송이버섯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한번은 비싼 송이를 된장찌개에 넣어 끓였는데 향긋한 내음이 입안에 가득하고 밥상이 풍성했다. 우리나라는 자연 속에 상해진미가 가득하다. 여인네들은 밭이나 산고랑에서 썸바귀도 캐고 가을 나뭇잎을 뜯어서 밥상에 올린다. 10월에 생각나는 송이와 썸바귀는 입맛을 잃었을 때 먹는 것도 좋고 또 직접 산에 가서 운동도 하고 송이버섯이며 썸바귀 산나물도 뜯고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흙을 밟으면서 바리도 맑게 하고 감정도 부드럽게 하고 싶다. 지금은 산을 좋아하는데 다리가 아파 못가고 있지만 빨리 나아 산에 오르고 싶다.

안녕하세요, 막내 **권도형**입니다. 저는 올초 EM실천에 왔습니다. 처음 EM실천에 왔을때는 인쇄사업부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오래일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딱히 힘든 점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컴퓨터 업무에 관심이 크고 자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문서작업과 편집 선생님들의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대하거나 자신있게 대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함께 일하는 복무요원들과 관심주는 담당 사회복지사님들과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를 접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저의 삶에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근무기간이 제일 많이 남은 제게 내년 초에 후배님이 들어오시겠죠? 힘들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EM실천이라는 낯선 곳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장애인분들, 선생님들 모두가 있어 좋습니다.

EM실천에 이들 삼총사가없다면 ...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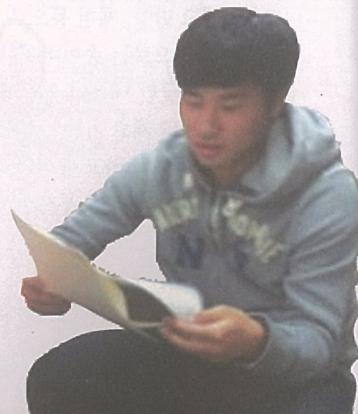
KWON DO HYUNG

LEE SANG YOON

Hi~ 여러분

EM실천의 BEST 드라버 **이상윤**입니다. 저는 삼총사 중 가장 신체건강하게 생겼으나 가장 허약체질을 자랑합니다. 권도형친구와 같이 컴퓨터를 잘하지도 못하고 동훈씨와 같이 참을성이 강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신있는 것은 운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이라고 너무 쉽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EM실천의 3대 수익사업중에 한부분인 우편발송대행사업을 수행하면서 우체국이라는 우체국은 다 갑니다. 특히 주거래 우체국인 관악우체국은 눈감고도 갈 정도로 하루에 한번은 가고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들은 저를 EM실천의 직원으로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발송을 하기 위해 고객이 부르며 언제든지, 발송후 남은 책자를 가져다드리려도 언제든지 ... 3분대기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차가 막혀 오래시간 거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루한 시간이지만 함께 하는 근로장애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며 지루하지 않은 운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동훈, 권도형씨와 같이 내구직이 아니다보니 외부에 있을 때가 많아 가끔 외로울때도 있지만 외구를 다녀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박수현선생님을 볼때면 힘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고참 이동훈입니다. ㅋㅋ

EM실천에 오지 벌써 2년이 다되어 가네요. 내년 1월이면 제대합니다. 저는 EM실천에서 현수막 출력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수막출력에서 제단, 포장, 납품 및 설치에 이르기까지 또한 고객관리도 합니다.

복무요원이 소화하기에 엄청난 량의 업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수막기계가 말썽이면 다 뽐은 현수막을 또 뽐아야하는 일, 디자인이 늦거나 업체에서 많은 량을 주문하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일, 실수로 행정 처리를 잘못했을 때 대처하는 일들 모두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제게 또 하나의 경험과 지식이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업체에 외구을 가는 일과 건강이 좋지 않은 근로장애인들과 동행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EM실천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활발하고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22살 청춘이거요. 앞으로 제대하는 날까지 EM실천의 현수막은 제가 책임집니다. ㅎㅎ



LEE DONG HUN

사회복무요원
삼총사

LEE SANG YOON
KWON DO HYUNG
LEE DONG HUN

내고장 자랑거리



직업재활팀장_임성수

이번 여름에 다녀온 울진 T131캠핑장이다.

1박 2일에서 오프로드 촬영으로 갔던 캠핑장..

정말 가보니 오프로드네.. 들어가는 초임이 험하다.

중앙고속도로 풍기IC에서 36번 국도로 영주를 거쳐 거의 90km 가까이 국도를 달려야 한다.

멋드러진 불영사 계곡과 함께 할 수 있다.

캠핑장이 가까이 오면 금강송군락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통제하는 곳이 있다.(T131 캠핑장에 왔다고 하면 무사통과함.)

맑은 계곡과 멋드러진 경치, 오프로드 여간 낭만이 있는게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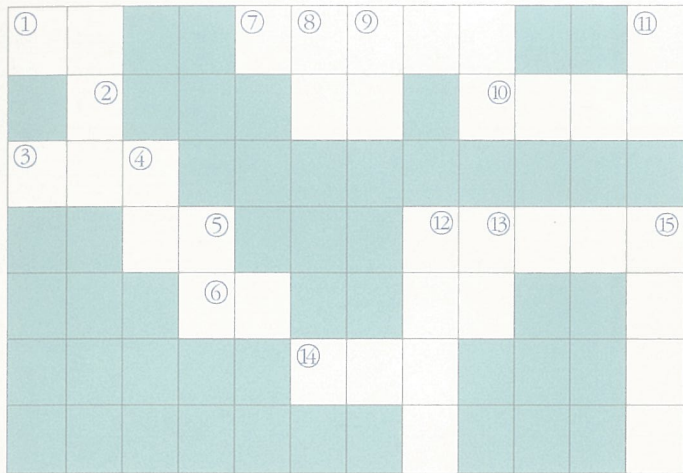
멋진 금강송 군락지도 함께 볼 수 있다.(미리 예약해야 하지만 캠핑장에서 왔다고 하면 들여보내줌..ㅋㅋ)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2리 131번지, 가족과의 멋진 추억 만들 수 있는 곳 강력 추천, (화장실이 조금 불편한것 빼곤 완벽..)



디자인팀장_ 이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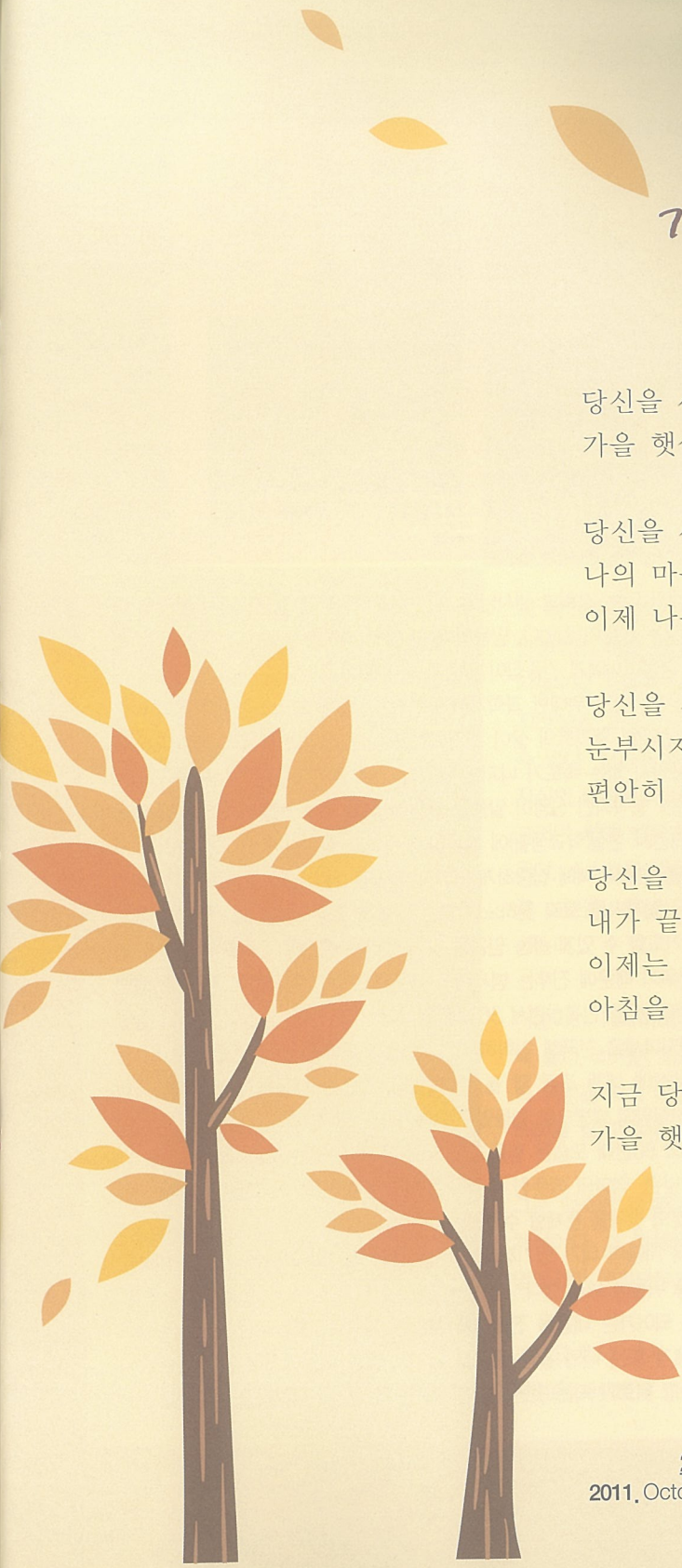
10월에 가볼만한곳으로 너무도 잘 알려진 속리산을 소개하고 싶다.
 서울에서 3시간정도면 충북 속리산국립공원이 있다.
 10월에 단풍구경도 좋지만 같은 시기에 대추축제도 같이 열려 1석이조로 좋은
 먹거리와 좋은 구경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보은대추는 옛날 임금님께 진상하
 던 과일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크기와 맛을 자랑한다.
 단풍구경을 하러 속리산입구로 접어들면 바로 입구에 범주사라고 유명한 사찰
 이 있다. 산행이 힘들다 싶은 사람은 범주사를 한바퀴 구경하고 사찰안에 전통
 찻집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바라보며 차한자 하고 나오면 잠시나마 바쁜일상
 을 벗어나 삶의여유로움을 찾을수 있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다보면 허기를 달래려고 맛집을 찾게 마련인데 입구쪽에
 산촌식당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한상푸짐히 버섯요리를 시켜먹으면 웰빙식
 으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좋아 적극 추천하고 싶은 맛집이다.
 생활이 지쳐서 여유가 없는시기 속리산으로 가을여행은 어떤지 추천하고 싶다.



- ① EM실천의 운영법인
- ② 운영법인의 뜻은 큰○○○
- ③ 가산디지털역의 이전역명
- ④ 광성○○
- ⑤ 다과(茶菓) · 과실(果實)등을 그릇에 담아 나르는데 사용하는 받침그릇
- ⑥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
- ⑦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
- ⑧ EM실천 원장의 이름
- ⑨ 경도(經度)와 함께 지구상의 지점(地點)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 ⑩ 음식에 밝은 사람
- ⑪ 제자백가의 하나. 변자라고도 함.
- ⑫ 유림제지가 위치한 지하철역명
- ⑬ 종이로 만든 모든 용기의 총칭
- ⑭ 현수막담당 사회복무요원의 이름
- ⑮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위치한 지하철역명



★ em실천에 관심주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권이 지급되니 많은 참여부탁해요
F. 875-9965 / e-mail : em21c@hanmail.net 로 퍼즐정답을 보내주세요.



가을사랑 / 도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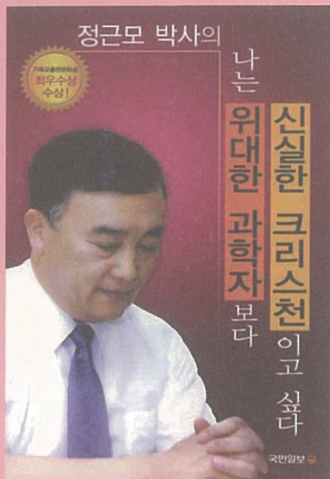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부는 저녁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갈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 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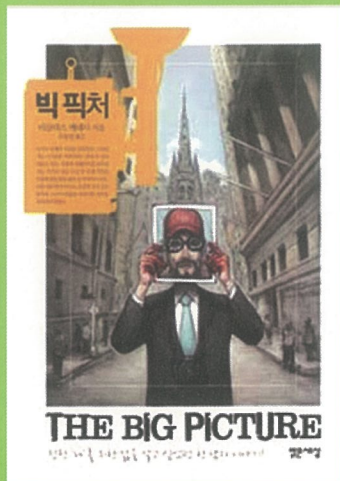
근로자_ 장정임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내가 다는 교회의 권사님이 주신 설교테이프중에 정근모박사와 그의 아들 진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 믿음이 많이 빨리 자라는 방법을 간증을 듣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동료인 경향미씨에게 간증집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여 빌려보게 되었다. 그책이 정근모박사가 쓴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이었다. 책의 1부에서 그런저런 엘리트의 삶이 소개되었고 나는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원했는데.. 실망스런 맘때문인지 읽는 속도가 나지를 않았다. 2부, 3부, 4부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특히 아들이 만성 신장염을 앓아 쾌유와 악화가 반복되면서 현실(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여 자살을 여러번 시도했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읽으며 책에 집중하게 되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아들이 짊어지고 가는 작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에 고통으로만 느껴졌던 진후의 병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을 갖게 했다는 생각에 진후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진후는 병세에도 불구하고 밝고 명랑하게 자랄 수 있었고 병이 악화되었다 호전되었다를 반복하면서 36세에 천국에 가게 된다. 믿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죽거든 슬퍼하지마세요 천국에 입학하러간다는' 말에 진후의 진한 신앙심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엘리트 세상에 대해 조금 엿볼 수 있었다. 강연한 내용을 읽을 때면 특히 1980년대초 내가 초기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힘들었던 그때가 생각난다.

무기력증으로 힘들었던 나의 80년대 모습은 힘들고 작고 보잘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런 나를 감당하기 힘들어 했던 남편,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던 아이들, 이 모든 것을 알지만 맘과 몸이 따로 되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없었던 나..

말하기엔 힘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모든 일들이 저자와 그아들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다시한번 나를 뒤돌아 보게 했다.

엘리트 과학자가 신앙인이 되어가는 내용을 진솔하게 서술한 책으로 나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또는 나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 개인에게 중요하고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알게하는 또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며



THE BIG PICTURE

THE BIG PICTURE

직업재활팀장_임성수

빅 픽처의 주인공 '벤 브래드포드'는 중형차 세단 광고에나 나올 법한 삶을 살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 높은 연봉, 교외의 주택,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아이 그림에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가'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못한다. 지하실에 고가의 장비와 암실을 설치해 놓고 여가시간을 보내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아내는 결혼 후 출산을 기점으로 '가정주부'가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며 남편과 갈등한다. 그러던 차에 벤은 이웃 남자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되고 우연히 이웃 남자를 죽이게 된다. 스스로를 죽음으로 위장하고 월스트리트의 변호사에서 아마추어 사진작가(이웃남자)로 신분을 세탁한 주인공은 오히려 사진가로서의 삶이 너무 잘 풀리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 픽처]를 TV에서 드라마로 만든다면 막장 드라마란 소리를 듣기에 딱 좋다. 하지만 소설 [빅 픽처]는 막장 드라마로 빠질 이야기를 잘 건어 들여 문학으로서의 위엄을 지켜 내었다. 막장으로 치닫는 이야기의 내면에 흐르는 주인공의 상실감과 삶의 의미를 잘 포착해 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익숙한 세계와 결별했고, 그 익숙한 세계가 주었던 추억과 행복이 바로 한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을 버리고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비약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모두가 한번씩은 꿈꾸는 현실이기도 하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런 처지에 다다른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하고 독자를 행간의 틈 사이로 사색하게 만들고 있는게 이책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EM실천 일거리 후원

EM실천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 중증장애
인생산품시설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으며 30명
의 중증장애인들과 취약계층이 함께 일하는 착한 기
업입니다.

EM실천은 **인쇄, 우편발송대행, 현수막 인쇄** 등의 수익
사업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립
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쇄, 우편발송 대행, 현수막인쇄 등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의: 02-875-9744, 9733

EM실천 후원안내

EM실천은  사회복지법인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M실천
의 근로자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
이 있길 바랍니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7-810031-14505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자원봉사 모집 안내

"봉사는 나누면서 내가 더욱 '살아'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

'한번만 봉사해도 괜찮을까? 이만큼까지 할 수 있는 데..'

정기적인 봉사가 아니어서 걱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들.. 모두 환영합니다.

01 내·외부 행사 보조 지원

02 일거리 작업참여

03 전문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EM실천 새로운 일꾼을 모집합니다.

- 등록장애인 만 18세 이상 ~ 55세 미만
- 일할 의욕이 있는 분